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길 열리나

### 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8억5300여만원 압류 결정...채무 기업이 이의신청 제기할 수도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를 결정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다른 자산이 아닌 현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지난 12일 양금액(91)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기업(LS엠트론)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번 압류 명령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양금액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한 판결에 근거해 이뤄졌다.

압류된 채권액은 양금액 할머니의 채권 2억 6700여만원 포함 총 8억 5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양금액 할머니와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3명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에 채무를 지고 있는 국내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가운데 금전 채권이 압류·추심 명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채권을 추심하는데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국내기업이 압류추심결정문을 수령한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거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 엔진 시스템'과 해왔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중공업 엔진 시스템"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

회사로 국내기업은 압류결정문 송달 이전까지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거래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했지만, 압류결정문 송달 이후 거래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압류추심 결정의 채무자인 LS엠트론가 이의신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단은 LS엠트론이 법원에 제출하게 될 채무자 진술서와 관

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 된다면 이는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날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흘러 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 측은 뒷받침 할만 한 근거 없이 줄곧 반복된 주장만 하고 있어 이날 발언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능 원서 접수 시작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1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검정고시 및 타 시도 고교졸업 수험생들이 수능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

광주 북구, 내달 17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북구는 다음달 17일까지 '2021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저출생 사회현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 및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저출생 대응 시책제안과 저출생 슬로건·UCC 등 3개로 나뉘며 저출생 인식제고, 임신·출산·양육 관련 기존제도 개선, 돌봄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참여는 광주 생활권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아동복지과로 방문·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오는 10월 중 당선작을 발표해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장려상(2명) 각 2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0~6세 가정방문 확대

### 아동학대 위기 사전 포착

정부가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 0~6세 중 학대·방임 가능성이 엿보이는 아동의 안전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는 올해 29개 보건소가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0개, 2024년에는 258개 보건소가 추가로 참여한다.

다만, 희망 가구에 대해서만 방문이 이뤄지므로 위기 아동 발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조사도 강화한다. 발달 단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검진·접종 기록이 없다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 달밤에 안전한 문화재야행 떠나요

광주 동구, 9월 대면·비대면 진행

코로나19장기화에 지친 지역민들을 위해 '광주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결음'이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동구 일대에서 안전하게 열린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상대의 모범적인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한 '광주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결음'이 올해도 역시 대면·비대면으로 병행해 지속 가능한 안전한 행사로 개최된다.

'광주문화재야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국 최초 온라인 야행 기획·운영으로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동구는 올해도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재'를 주제로 6개 분야, 18종의 프로그램이 문화재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열린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될 대면 행사는

9월 3~4일, 10~11일 4일간 옛 전남도청 본관과 광주읍성유서, 서석초등학교 일대에서 ▲토크콘서트 '보이지 않는 성, 광주읍성과 만나다' ▲동구 이야기꾼의 문화재 산책 ▲동구 달빛정원 ▲코레일 광주문화재야행 열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야행은 9월 3일부터 17일 동안 광주문화재야행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주문화재야행TV'를 통해 진행되며 지역의 보석같은 문화콘텐츠를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유명 역사강사 '최태성'과 함께 일제강점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광주읍성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랜선 투어와 토크콘서트로 광주읍성의 재발견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대, 입시생 위한 학과 홍보영상 공개

조선대학교가 입시생을 위한 '학과 홍보 동영상' 8편을 공개했다.

영상은 ▲정치외교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신문방송학과 ▲태권도학과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컴퓨터통계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법학과 등의 홍보 동영상으로 총 8편이다.

공개된 영상은 2021년 학과 홍보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으로 재학생과 교수가 함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는 진로 정보, 취업

사례, 학과 자랑거리 등을 다뤄 실제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8편의 학과동영상 수상작은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학과홍보동영상(https://www.3.chosun.ac.kr/chosun/2358/subview.do#close) 또는 조선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chosununi/feature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희중 기자 chae@

## 광주 남구, 대장암·유방암 2차 검진비 지원

광주 남구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 결과의 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검진비용을 지원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에서 진행한 암 검진을 받은 주민 가운데 1차 검사에서 대장암(만 50세 이상)과

유방암(만 40세 이상) 의심 판정을 받은 주민이다.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062-607-612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